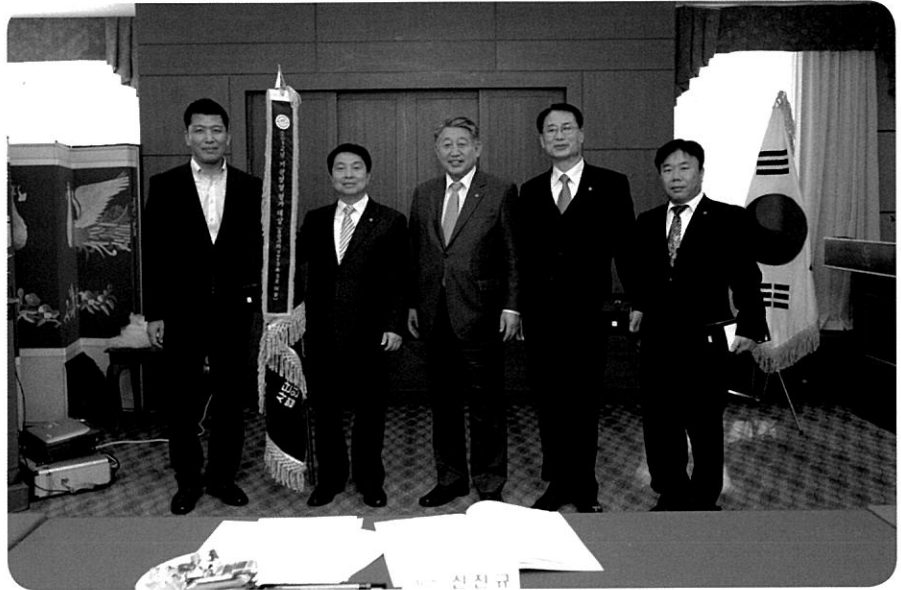


Safety Pictures

2012년 기관경영평가 시상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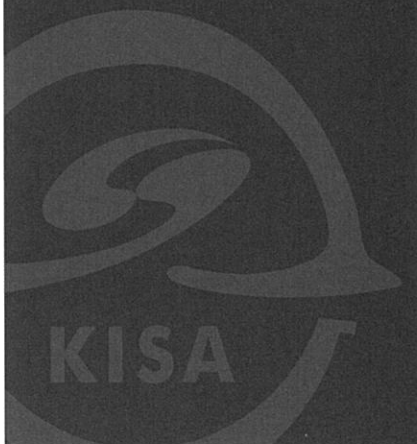


대한산업안전협회가 '2012년 기관경영평가' 시상식을 3월 14일 개최했다.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각 지회별로 추진한 회원사업, 안전대행, 교육사업, 인증검사, 건설사업 등 사업부문과 수익 및 성장부문, 공익사업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종합대상 울산지회, 금상 성남지회, 은상 부산지회, 동상 제주지회 등이 각각 선정됐다. 신진규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각 지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준 덕분에 안전 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협회의 위상 역시 더욱 공고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 굳건한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북부지역 무재해 결의 다짐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충북북부지회(지회장 박용석)는 최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박영길)과 함께 충주 남산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길 충주고용노동지청장, 협회 박용석 충북북부지회장, 한국노총 김영수 충주음성지부 의장 등을 비롯한 충주·제천·음성·단양지역 노사정 대표와 관내 안전보건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석 지회장은 "이번 행사가 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노·사·정모두의 힘과 의지를 모아 관내 사업장에 안전문화를 조속히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주) 신보령화력건설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와 한국중부발전(주) 신보령화력건설본부(본부장 나병제)가 2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협회 김성철 기술이사와 성호경 건설안전본부장 등을 비롯한 협회 주요 인사와 나병제 신보령화력건설본부장, 임갑수 품질안전팀장 등 신보령화력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보령발전소 1, 2호기가 준공될 때까지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Safety Pictures_

강원지역, 무재해 결의대회 및 안전기원제 개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영수)과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지회장 이재현)는 지난 5일 춘천 봉의산 순의비 앞에서 무재해 결의대회 및 안전기원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수 강원지청장, 이재현 협회 강원지회장을 비롯해 안전보건공단 강원지도원, 한국노총, 경영자협회, 관내 사업장 안전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함께했다. 김영수 강원지청장은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산재 걱정 없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밝혔다.



Safety Pictures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성 강화

짐운반용 리프트 안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

■ 일시 : 2013. 3. 6(수) 14:00

■ 장소 : 연합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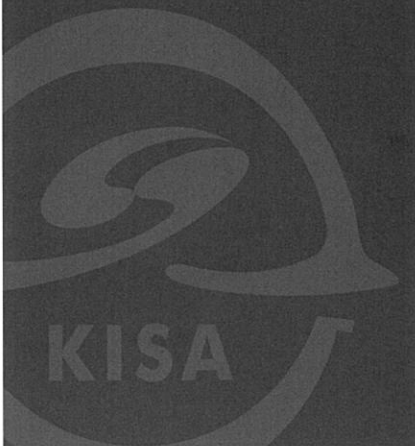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회(지회장 전우중)는 지난 3월 6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정비 업체인 연합특장(대표 최영창)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원활한 검사수행을 위한 검사소 지원 및 상호 기술지원 △안전검사 기준에 의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 실시 및 판정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및 정비 실시 등이다. 전우중 부산지회장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장비 특성상 별도의 검사장소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검사업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항지회, 철강업종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지회장 김천석)는 지난 3월 7일 포항시 5호 광장에서 '말로하는 안전보다 행동하는 안전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북동부 지역은 (주)포스코,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 (주)세아제강 등 국내 4대 철강 메이저사가 소재해 있는 도시로, 중량물취급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의 발생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포항지회는 매월 안전캠페인을 실시,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나가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 위한 협력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천지회(지회장 채수현)와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병원장 양유희)이 지난 3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네트워크 구축 및 안전보건관련 정보의 교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협력 ▲홍보 및 출판사업에 관한 협력 ▲산업안전보건 관리, 고용 및 산재보험지원 등이다. 채수현 지회장은 “산업안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서부지역 산재 없는 일터 만들기 다짐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서부지회(前 지회장 김용규)는 최근 와룡산(대구 달서구 소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김상용)이 주관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서부지회와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도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관내 안전보건유관기관들이 공동 노력을 전개해 지역 내 재해율을 감소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모아진 결의를 바탕으로 산재 없는 무재해 일터를 반드시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협회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개최

대한산업안전협회 노동조합은 지난 3월 14~15일 보령비체팰리스에서 '제20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엽 노조위원장은 “제8대 노동조합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노조원들이 마음 편히 산재예방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협회 발전, 노사화합 및 상생협력의 선진노사문화를 반드시 구현하여 협회를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재성 협회 관리이사도 노사 상생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협력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

